

위대한 경도, 불멸의 70성상

거창한 창조의 역사와 더불어 그 업적 길이 빛나리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창조와 건설의 영웅서사시를 아로새기며 불멸의 사회주의 국가로 위용펼쳐온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 공화국의 성스러운 70년력 사속에는 창조와 번영의 년대로 세계를 격통시킨 1980년대도 있다.

주체조선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비약의 열풍을 일으킨 1980년대!

돌이켜보면 80년대 속도 창조의 거제한 불길속에 토동당시대를 빛내인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얼마나 눈부시게 솟아올랐던가.

우리 공화국의 력사를 금문자로 빛내인 1980년대의 기적과 창조의 전성기는 특출한 영도력과 비상한 실현력, 뜨거운 인간애를 담고 있는 유색금속고지가 점령하는 것은 나리의 강철, 기계, 화학, 세멘트공업을 비롯한 산반적인 인민경제를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더욱 기인민생활을 추구세우는데 결정적 의지를 가지었다.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현시기 경제전체에 걸친 유색금속고지의 중심고리를 확장하는데 있다고 천명하였다.

방대한 유색금속고지점령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데서 그 결정적 고리를 광업 종합 기업소(당시)

제3선광장건설에 달려있었다.

실로 점덕의 제3선광장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어떤 속도에,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가를 세계에 파시한 80년대 속도 창조의 및 나는 분보기였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1980년 대에 기적과 번영의 년대로 산적한 새로운 진군속도인 80년대 속도!

이는 어버이수령님의 영도를 충실히 하여 밭을 놓거나는 것을 자신의 제일 사명으로 간주하고 조국땅 땅방포록에 헌신의 자유를 새기신 위대한 창군님의 정력적인 혁명실천이 낳은 승리였다.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위력을 과시하는 자랑찬 창조물이며 통성의 새 기적과 더불어 길이 빛나는 1만 t 프레스!

어떻게 하나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그렇듯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는 강자로 되게 하였는가?

탁원기계련합기업소연혁사의 갈피에 새겨진 감동깊은 이야기가 우리의 기슴을 뜨겁게 하여준다.

1980년대 이르러 우리 나라에서는 대형산소분리기제작문제가 절박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대형산소분리기제작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것으로 세계에 대한 믿음으로 위대한 창군님께서는 통성의 로동계급에게 1만 t 프레스를 만드는데 대한 영예로운 책임을 동시에 맡게 되었다.

제일 난문제인 열교환기의 중요부

분들을 다른 나라에서 사들여다

양양을 일으키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의도가 담겨진 구호였다.

김철의 로동계급이 80년대 속도 창조를 위한 첫 봉화를 주거들었고 이에 호응하여 온 나라가 떨쳐나섰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열리게 되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6차전원회의에서는 당 제6차전원회가 제시한 유색금속고지가 점령하는데 대한 문제를 기본의제로 토의되게 되었다.

유색금속고지가 점령하는 것은 나리의 강철, 기계, 화학, 세멘트공업을 비롯한 산반적인 인민경제를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더욱 기인민생활을 추구세우는데 결정적 의지를 가지었다.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현시기 경제전체에 걸친 유색금속고지의 중심고리를 확장하는데 있다고 천명하였다.

방대한 유색금속고지점령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데서 그 결정적 고리를 광업 종합 기업소(당시)

제3선광장건설에 달려있었다.

실로 점덕의 제3선광장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어떤 속도에,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가를 세계에 파시한 80년대 속도 창조의 및 나는 분보기였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1980년 대에 기적과 번영의 년대로 산적한 새로운 진군속도인 80년대 속도!

이는 어버이수령님의 영도를 충실히 하여 밭을 놓거나는 것을 자신의 제일 사명으로 간주하고 조국땅 땅방포록에 헌신의 자유를 새기신 위대한 창군님의 그날의 모습은 오늘도 이르로동계급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통성의 로동계급이 만들어낸 1만 t 프레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코나큰 믿음에 기어이 보답해야 한다는 통성의 로동계급, 이 나라로동계급의 고결한 신념과 의리의 결정체였으며 그 믿음속에 심장도 담도 커지고 한껏 슬기와 재능의 나래를 펼친 우리 로동계급의 불멸의 힘의 시작이다.

하나같이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그렇듯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는 강자로 되게 하였는가?

탁원기계련합기업소연혁사의 갈피에 새겨진 감동깊은 이야기가 우리의 기슴을 뜨겁게 하여준다.

1980년대 이르러 우리 나라에서는 대형산소분리기제작문제가 절박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대형산소분리기제작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것으로 세계에 대한 믿음으로 위대한 창군님께서는 통성의 로동계급에게 1만 t 프레스를 만드는데 대한 영예로운 책임을 동시에 맡게 되었다.

제일 난문제인 열교환기의 중요부

분들을 다른 나라에서 사들여다

앞세우면서 건물의 기초축성과 축조, 설비의 조립, 배관, 전기공사 등 모든 공사들이 거의 동시에 전개적으므로 시작되었다.

요한한 미평가며 파쇄사멸장, 빙대한 부지를 차지한 대규모부선장과 수십리 굴길을 지나 온통으로 빙어오른 대형장거리 베트콘풀이 이수송선 그리고 선왕간장 물마리에 그른하게 들어앉은 현대적인 특대형 및 대형 설비들…

마침내 그처럼 방대한 점덕의 제3선광장건설이 불과 1년만에 완공되었을 때였다.

준공을 앞둔 이론아침 선광장을 찾으으시여 불수록 웃장한 창조물을 바라보시며 시종한 미소를 금치 못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잘 건설하였다고, 제3선광장을 일컬어 통안에 건설한 것은 기적이라고 하시면서 견적광업종합기업소 제3선광장은 80년대 속도 창조운동의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공지들이 선언하였다.

실로 점덕의 제3선광장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어떤 속도에,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가를 세계에 파시한 80년대 속도 창조의 및 나는 분보기였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1980년 대에 기적과 번영의 년대로 산적한 새로운 진군속도인 80년대 속도!

이는 어버이수령님의 영도를 충실히 하여 밭을 놓거나는 것을 자신의 제일 사명으로 간주하고 조국땅 땅방포록에 헌신의 자유를 새기신 위대한 창군님의 그날의 모습은 오늘도 이르로동계급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통성의 로동계급이 만들어낸 1만 t 프레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코나큰 믿음에 기어이 보답해야 한다는 통성의 로동계급, 이 나라로동계급의 고결한 신념과 의리의 결정체였으며 그 믿음속에 심장도 담도 커지고 한껏 슬기와 재능의 나래를 펼친 우리 로동계급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하나같이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그렇듯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는 강자로 되게 하였는가?

탁원기계련합기업소연혁사의 갈피에 새겨진 감동깊은 이야기가 우리의 기슴을 뜨겁게 하여준다.

1980년대 이르러 우리 나라에서는 대형산소분리기제작문제가 절박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대형산소분리기제작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것으로 세계에 대한 믿음으로 위대한 창군님께서는 통성의 로동계급에게 1만 t 프레스를 만드는데 대한 영예로운 책임을 동시에 맡게 되었다.

제일 난문제인 열교환기의 중요부

분들을 다른 나라에서 사들여다

높이만 하여도 근 25m로서 10층 아파트만 하고 부속은 모두 3 070여종에 무려 7만 200여개, 제일 작다고 하는 본체기둥고정나트 하나가 화물자동차 몽근 한대분의 적재량…

통성기계련합기업소는 힘있는 기업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이 믿음은 통성로동계급의 심장을 열화 같은 충정으로 끌게 하였다.

일군들도 동물들도 기술자들도 그리고 가정부인들까지 모두가 1만 t 프레스제작에 펼쳐나서 낮파 밤을 보르는 걸루를 벌렸다. 이렇게 창조하는가, 힘들지만 체험으로 할 것인가.

두 길중 한길을 택해야 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였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체의 힘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하며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달라붙어야 하는 것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교묘가 턱으로 통계급의 가슴을 세차게 격동시켜주었다.

자력갱생이니 살길이다!

탁원의 10명 당원들이 높이 발휘하였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이어받은 이곳로동계급에게는 다른 걸기 없었다.

발전된 나라들의 산소분리기생산방법에 대 한 자료들도 알려주시고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신비하게 조사사업이었다.

돌이 켜 보면 서해 갈문건설은 20리 날마다를 가로막아야 하는 선대미문의 거창하고 어려운 대자연개조사업이었다.

그때 까지만 하여도 인류는 물을 다스리는 데서 인간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날마다를 수에 즐겨와 빠나마 유행건설을 기준으로 하여 가능하였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이며 아니다. 우리는 이 대자연과의 싸움에서 이것을 온 세상에 증명할 것이다.

주체조선의 이 불굴의 신념과 투지를 산악같이 분출시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절처진 대자연개조건설의 힘으로 통계급을 해방하고 빙대한 환경을 향해 주시고 지혜롭게 하였다.

탁원기계련합기업소연혁사의 갈피에 새겨진 감동깊은 이야기는 우리 나라에서 새겨진 감동깊은 이야기이다.

우리 나라 기계공업발전에서 하나의 혁명으로 되는 대형산소분리기제작은,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담고 있다.

창조와 번혁은 목표를 높이 세웠다고 하여 저절로 이룩되는것이 아니다.

제일 난문제인 열교환기의 중요부

분들을 다른 나라에서 사들여다

조립하는가, 힘들지만 체험으로 할 것인가.

두 길중 한길을 택해야 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였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체의 힘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하며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달라붙어야 하는 것이다.

탁원기계련합기업소는 힘있는 기업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이 믿음은 통성로동계급의 심장을 열화 같은 충정으로 끌게 하였다.

일군들도 동물들도 기술자들도 그리고 가정부인들까지 모두가 1만 t 프레스제작에 펼쳐나서 낮파 밤을 보르는 걸루를 벌렸다. 이렇게 창조하는가, 힘들지만 체험으로 할 것인가.

두 길중 한길을 택해야 하였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체의 힘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하며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달라붙어야 하는 것이다.

탁원기계련합기업소연혁사의 갈피에 새겨진 감동깊은 이야기는 우리 나라에서 새겨진 감동깊은 이야기이다.

우리 나라 기계공업발전에서 하나의 혁명으로 되는 대형산소분리기제작은,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담고 있다.

창조와 번혁은 목표를 높이 세웠다고 하여 저절로 이룩되는것이 아니다.

제일 난문제인 열교환기의 중요부

분들을 다른 나라에서 사들여다

준엄한 경세와 경쌓이는 시련속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공적으로 밟고나가자면 그에 맞는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창조방식이 있어야 한다.

김철은 통계급의 힘으로 통계급을 정복하고 우리 식의 새로운 대형산소분리기제작을 성공적으로 밟고나가자면 그에 맞는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창조방식이 있다.

남들이 열걸음, 배걸음 걸은 것을 일행 천리하여 보통상식으로는 몇십년이 걸려야 하는 창조물도 단 몇해 사이에 일떠서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탁원기계련합기업소는 힘있는 기업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이 믿음은 통성로동계급의 심장을 열화 같은 충정으로 끌게 하였다.

탁원기계련합기업소연혁사의 갈피에 새겨진 감동깊은 이야기는 우리 나라에서 새겨진 감동깊은 이야기이다.

우리 나라 기계공업발전에서 하나의 혁명으로 되는 대형산소분리기제작은,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담고 있다.

창조와 번혁은 목표를 높이 세웠다고 하여 저절로 이룩되는것이 아니다.

제일 난문제인 열교환기의 중요부

분들을 다른 나라에서 사들여다

신심을 얹겨주시고 일을 잘하여 모두가 영웅이 되라고 뜨겁게 고무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

갑문건설에서의 주타격방향을 정해주고 우리 식의 새로운 대형산소분리기제작을 성공적으로 밟고나가자면 그에 맞는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창조방식이 있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종일관 구현하여 오신 통성적방식으로는 속도전을 벌여 공사를 빨리 다그치기 위한 방도를 훤히 밝혀주신 비법한 예지, 많은 로리과 설비가 접속되어 건설이 진행되는 공사의 특성에 맞는 것을 파악하고는 대형산소분리기제작을 성공적으로 밟고나가자면 그에 맞는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창조방식이 있다.

남들이 열걸음, 배걸음 걸은 것을 일행 천리하여 보통상식으로는 몇십년이 걸려야 하는 창조물도 단 몇해

영화문화발전의 길에 새겨진 불멸의 령도

조선영화창작사의 70년력사를 돌아보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화예술을 발전시키자면 무엇보다도 영화문화를 앞세워야 한다. 좋은 영화문화가 많이 나와야 영화계가 풍년이 됩니다.』

우리 공화국의 성스러운 역사에는 조선영화문화창작사가 걸어온 70년의 자랑찬 행로도 새겨져 있다.

들이켜보면 우리 나라에 영화에 출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한 령도밑에 참다운 발전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불朽의 로고와 혼신속에 일대 전성기를 맞이 할 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영화에 출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인 영화문화를 전문으로 창작하는 조선영화문화창작사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창작들이 시대 정신이 빙성된 영화문화를 출기차게 창작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하여 조선영화문화창작사는 주제 3(1988)년 6월 14일에 창작작품에 출을 사회주의 현실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리본실천문제들은 참으로 많았다.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 장군님께서는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최상의 영광을 받아안게 되었다.

영화에 출을 사회주의 현실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리

본인들이 투쟁의 길동무로, 생활의 친근한 벗으로 여기고 있는 예술영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후에 온갖 철학과 고고를 다

어느때인가 영화부문 일군들과 작

들의 만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어떻게 하면 영화제작과 협동과 긍지로 중앙부에서는

조국이 해방된 후 일부 일군들은 우리 나라에는 영화문화를 출만 한 소재가 없기 때문에 예술영화를 제작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영화를 사다가 돌리자고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에게 우

리에게도 영화를 만들수 있는 소재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면서 우리 인민의 영웅적이며 투쟁력사와 해

방을 맞이한 내 나라의 현실을 소재로 하여 예술영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셨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런 예술영화는 인민들에게 믿족적

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줄 수 있고 그

들을 세 조국건설에 힘있게 불러일 으킬수 있다고 하시면서 일군들과 창작들을 고루해 주시였다.

그들이 아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을 명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작가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활발무장투쟁

시기에도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

었으며 우리의 문학에 출이 나아갈 길

을 편히 밝혀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영화문화창작

작방향까지 밝혀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영화문

화창작을 하여온 조선영화문화창작

사의 작가들은 1960년대부터 문

학에 출의 영재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최상의 영광

을 받아안게 되었다.

영화에 출을 사회주의 현실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리

본인들이 고려주시고 영화를 더욱 훌

륭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도도 구체

적으로 마련해 주시였다.

우리 인민을 무한히 격동시킨 첫

예술영화 「내 고향」의 탄생은 작가

들의 마음마다 새 조선의 작가들

존엄과 긍지를 안겨주었다. 그

존엄과 긍지를 안고 창작들은 가렬한 조

국해방전생기시기에 중단없이 영화

문화를 쏟아냈다.

영화에 출을 사회주의 현실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리

본인들이 고려주시고 영화를 더욱 훌

륭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도도 구체

적으로 마련해 주시였다.

우리 인민을 무한히 격동시킨 첫

예술영화 「내 고향」의 탄생은 작가

들의 마음마다 새 조선의 작가들

존엄과 긍지를 안겨주었다. 그

존엄과 긍지를 안고 창작들은 가렬한 조

국해방전생기시기에 중단없이 영화

문화를 쏟아냈다.

영화에 출을 사회주의 현실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리

본인들이 고려주시고 영화를 더욱 훌

륭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도도 구체

적으로 마련해 주시였다.

우리 인민을 무한히 격동시킨 첫

예술영화 「내 고향」의 탄생은 작가

들의 마음마다 새 조선의 작가들

존엄과 긍지를 안겨주었다. 그

존엄과 긍지를 안고 창작들은 가렬한 조

국해방전생기시기에 중단없이 영화

문화를 쏟아냈다.

영화에 출을 사회주의 현실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리

본인들이 고려주시고 영화를 더욱 훌

륭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도도 구체

적으로 마련해 주시였다.

우리 인민을 무한히 격동시킨 첫

예술영화 「내 고향」의 탄생은 작가

들의 마음마다 새 조선의 작가들

존엄과 긍지를 안겨주었다. 그

존엄과 긍지를 안고 창작들은 가렬한 조

국해방전생기시기에 중단없이 영화

문화를 쏟아냈다.

영화에 출을 사회주의 현실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리

본인들이 고려주시고 영화를 더욱 훌

륭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도도 구체

적으로 마련해 주시였다.

우리 인민을 무한히 격동시킨 첫

예술영화 「내 고향」의 탄생은 작가

들의 마음마다 새 조선의 작가들

존엄과 긍지를 안겨주었다. 그

존엄과 긍지를 안고 창작들은 가렬한 조

국해방전생기시기에 중단없이 영화

문화를 쏟아냈다.

영화에 출을 사회주의 현실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리

본인들이 고려주시고 영화를 더욱 훌

륭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도도 구체

적으로 마련해 주시였다.

우리 인민을 무한히 격동시킨 첫

예술영화 「내 고향」의 탄생은 작가

들의 마음마다 새 조선의 작가들

존엄과 긍지를 안겨주었다. 그

존엄과 긍지를 안고 창작들은 가렬한 조

국해방전생기시기에 중단없이 영화

문화를 쏟아냈다.

영화에 출을 사회주의 현실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리

본인들이 고려주시고 영화를 더욱 훌

륭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도도 구체

적으로 마련해 주시였다.

우리 인민을 무한히 격동시킨 첫

예술영화 「내 고향」의 탄생은 작가

들의 마음마다 새 조선의 작가들

존엄과 긍지를 안겨주었다. 그

존엄과 긍지를 안고 창작들은 가렬한 조

국해방전생기시기에 중단없이 영화

문화를 쏟아냈다.

영화에 출을 사회주의 현실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리

본인들이 고려주시고 영화를 더욱 훌

륭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도도 구체

적으로 마련해 주시였다.

우리 인민을 무한히 격동시킨 첫

예술영화 「내 고향」의 탄생은 작가

들의 마음마다 새 조선의 작가들

존엄과 긍지를 안겨주었다. 그

존엄과 긍지를 안고 창작들은 가렬한 조

국해방전생기시기에 중단없이 영화

문화를 쏟아냈다.

영화에 출을 사회주의 현실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리

본인들이 고려주시고 영화를 더욱 훌

륭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도도 구체

적으로 마련해 주시였다.

우리 인민을 무한히 격동시킨 첫

예술영화 「내 고향」의 탄생은 작가

들의 마음마다 새 조선의 작가들

존엄과 긍지를 안겨주었다. 그

존엄과 긍지를 안고 창작들은 가렬한 조

국해방전생기시기에 중단없이 영화

문화를 쏟아냈다.

영화에 출을 사회주의 현실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리

본인들이 고려주시고 영화를 더욱 훌

륭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도도 구체

적으로 마련해 주시였다.

우리 인민을 무한히 격동시킨 첫

예술영화 「내 고향」의 탄생은 작가

들의 마음마다 새 조선의 작가들

존엄과 긍지를 안겨주었다. 그

존엄과 긍지를 안고 창작들은 가렬한 조

국해방전생기시기에 중단없이 영화

문화를 쏟아냈다.

영화에 출을 사회주의 현실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리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제30차 대회 진행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녀성동맹) 제30차 대회가 8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허종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강추녀 부의장 겸 제30차 대회 선임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 각급 조직들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4차 전체대회에 보내주신 축하문이 빙동되었다.

허종민 의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4차 전체대회에 보내주신 축하문에는 온갖 고생을 달게 여기며 남편들을 애국의

길로 떠밀어주고 자녀들을 미폐의 역 군으로 억새개 기워가는 녀성동맹원들의 뜨거운 애국충정과 사업성과에 대한 높은 평가도 담겨져 있다고 지적 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걱정속에 언급하였다.

총련의 가장 큰 군중단체인 녀성동맹의 사업이 더 활발히 전개될 때 동포사회에서 민족성과 동포에 줄어들어 어이지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반적부흥을 이룩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강추녀 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017년 10월 9일 제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결성 70돐기념 중앙대회에 친히 사랑의 축전을 보내주시었으며 지난 4월에는 자기에게 꿈공화국공민의 최고령에 이르러 영웅칭호를 수여

하도록 특색 있게 이바지하고 대외사업을 활발히 전개함에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일본인사들의 현대발언이 있었으며 그들이 보내온 축전이 소개되었다.

대회에서는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추녀 풍양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다시 선출되었다.

강추녀 위원장이 폐회사를 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량득되었다.

대회가 끝난 다음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제30기 제1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총련 제24차 전체대회 결정집행을 위한 도쿄도본부 대회 진행

총련 도쿄도본부 제24차 대회가 10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허종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도쿄도본부 일군들을 비롯한 대의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4차 전체대회에 보내주신 축하문이 빙동되었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4차 전체대회에 보내주신 축하문이 빙동되었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4차 전체대회에 보내주신 축하문에는 온갖 고생을 달게 여기며 남편들을 애국의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아들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과 평화의 유일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총련의 애족에 국의 본래를 빛내는데 적극 이바지 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도쿄도본부가 애족에 국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기기 위한 도약에 도쿄도본부의 애족에 국운동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사업방향과 과제를 이토의 되었다.

조일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겸 도쿄도본부 위원장이 본부집행위원회 사업보고를 하였다.

그는 총회기간 일군들과 동포들이

파구를 열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도쿄도본부 위원장으로 고덕우대의원이 선출되었다.

허종만의 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도로 세기적인 대사변이 일어나는 격동의 시대에 애족에 국활동을 벌리는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전면적부흥을 앞당기며 대하여 언명하였다.

또한 동포들의 행보를 정

취하며 사랑하는 후대들의 회망찬 일꾼을 험쳐나가기 위해 애족에 국운동

을 더욱 높이 있게 전개해 나가며 모든 사업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세 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벌

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하

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하

였다.

총련중앙이 자리잡은 도쿄도본부는 제30기 선임운동의 최전선에서 항상 애족에 국운동을 힘있게 견인하여 할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본부가 조례에 국운동의 전성기를 열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 나갈데 대하여 언명하였다.

그는 본부의 새 집행부가 『나를 따라 앞으로!』의 정신으로 항상 대오의 앞장에 서며 모든 일군들이 굳게 단결하고 동포들과 고탁을 같이하여 제30기 선임운동의 전면적부흥을 암아오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량득되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회는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에 나아가고 호소하였다.

여기에는 남조선의 80여개의 시

민족단체들과 수많은 각계층 인민

들이 참가하였다.

평화초불추진위원회는 판문점선언

의 리행과 평화협정체결로 항구적인

집회에서 도통자들은 조선반도의

판문점선언의 기치높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역사 창조에 총매진해 나갈 것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기자회견에서 강조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8돐에 즈음하여 박수철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는 13일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회견에서는 일본인사들의 현대발언이 있었으며 그들이 보내온 축전이 소개되었다.

대회에서는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추녀 풍양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다시 선출되었다.

강추녀 위원장이 폐회사를 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량득되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의 기치임을 실증해 주었다.

6.15통일시대의 개척자, 평도자 이신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무궁번영할 민족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오늘 우리 거례의 앞길에는 자주통일의 새로운 리정표가 등대로 빛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고 맛혔던 분렬의 설움을 6.15통일시대의 불빛으로 끄어주시겠다고 말하였다.

김정일장군님의 한평생은 조국통일운동에 몇나는장을 아로새기 절세의 애국자의 혼신의 력사이다.

그이께서는 투철한 통일의지와 넓은 도량, 애국족의 대용단으로 장장 반세기 이상 거례의 가슴속에 드물게 길이 맛난 것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의 전위투사들은 각계층에 걸친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경향각지에 18년전과 같은 새로운 대로로 출발한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위대한 장군님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북남협력사업에 적극 참가할 의지를 펴려하였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평화와 번영』에 나온 문구를 한글로 옮기고 청와대에 향기로운 향수를 뿐만 아니라 조국통일의 상징으로 『통일로 가자』, 『통일로 가자』, 『우리 민족은 세계를 끌어들이자』, 『평화와 번영』을 외쳤다.

본사기자

민족의 지향과 네원에 역행하는 인간주물들

최근 남조선에서 판문점선언지지결의안의 『국회』 티커를 끌고 있으며 조선반도평화를 바라는 온 국제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는 『자유한국당』 페거리들의 망동이 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자유한국당』 페거리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판문점선언지지결의안에 『북핵 평화를 명확하게 포함해야 한다고 억지로 부렸다.

특히 홍준표역도는 『판문점선언지지결의안이 아니라 북핵 평화를 명확하게 포함해야 한다고 억지로 부렸다.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통령을 발표하여 『자유한국당』이 조선반도평화 확장을 위한 모든 대화가 파탄되기를 빌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지금 온 거례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적극 지지하면서 선언이 허무하게 리행되어 조선반도 평화를 명확하게 조성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보수역적파들은 이번에 북남관계를 최악의 상태에 몰아넣은 리명박, 박근혜 역적파

서 항의 규탄과 비난이 비발치 고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자기 힘으로 무리하게 내세우며 판문점선언지지결의안제택을 거부한 것을 평화를 넘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단죄하였다.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통령을 평화를 명확하게 포함해야 한다고 비난하였다.

민족의 지향과 네원에 도전해나서는 『자유한국당』 페거리를 살펴보면 민족공동의 합의를 무침하고 유린하고 북남관계가 파괴되는 쓰라린 피해를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보수역적당을 쓰러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가고 있다.

리명박반역보수『정권』의 반

당원들은 이를 끝으로 조선반도평화 확장을 위한 대회는

제30차 대회를 강화할립장을 천명하였다.

반법조 투쟁을 강화할립장을 천명

필리핀대통령 로드리고 드레스가 6일 기자회견에서 반법조 투쟁을 강화할립장을 천명하였다.

수리아군대와 인민이 적대세력들을

온갖 도전을 물리

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평통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수리아군은 디마스끄 남부군과

주민대인 야르무크를

크로스로 투쟁하고 있다.

수리아정부는 피난민들과

평화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

고 식량과 필수품의 수송조직을

짜고 대책을 취하고 있다.

대통령 바사르 알 아사드는 정부가 7년간의 싸움으로써

국제적 평화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 바사르 알 아사드는 정부가 7년간의 싸움으로써

국제적 평화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 바사르 알 아사드는 정부가 7년간의 싸움으로써

국제적 평화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 바사르 알 아사드는 정부가 7년간의 싸움으로써

국제적 평화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 바사르 알 아사드는 정부가 7년간의 싸움으로써

국제적 평화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 바사르 알 아사드는 정부가 7년간의 싸움으로써

국제적 평화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 바사르 알 아사드는 정부가 7년간의 싸움으로써

국제적 평화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 바사르 알 아사드는 정부가 7년간의 싸움으로써

국제적 평화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 바사르 알 아사드는 정부가 7년간의 싸움으로써

국제적 평화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 바사르 알 아사드는 정부가 7년간의 싸움으로써

국제적 평화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